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 확산... 미국은 영적 위기”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가 남가주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오는 10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기도회는 한인교회를 비롯해 히스패닉, 백인, 흑인, 중동인, 일본인 등 타민족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이 연합해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와 11월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다민족 기도회는 코로나19로 대중이 모여 기도하는 집회에 어려움이 있어, 당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되는 현장 기도회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게 된다. 기도회는 한·영으로 진행되며, 그 외 민족을 위해 통역이 제공된다.

지난 17일 열린 기도회 설명회에서 교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 확산 등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한 우려하며 ‘어느 때보다 회개와 기도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남가주 지역 교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송정명 목사(대회 고문)는 “코로



2020년 다민족연합기도회 주최측은 지난 17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독일보

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며 “미국에서 자라날 차세대들을 위해, 또 세계 선교를 위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타민족 지도자들에게 기도 인도와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타민족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케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민족 교회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기도회 참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도회는 대회장 한기홍 목사의 설교에 이어 김춘근 교수, 진유철 목사, 디온 엘모어(Dion Elmore) 목사, 월터 터커(Walter Tucker) 목사, 알렌 파커(Allen Parker) 목사, 레오 나르도 후엔츠(Leonardo Fuentes) 목사 신승훈 목사 박성규 목사가

△회개와 코로나19 종식 △미국의 회복 △미국 대통령 선거 △인종화합 △태아생명보호 △청교도 신앙 회복 △한국교회 위한 기도를 인도하게 된다.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2020년 다민족연합기도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남가주 한인교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기홍 목사는 “올해 미국은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기

로에 서 있다”며 “대혼란에 빠져있는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다함께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에는 100명 밖에 참석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수 천, 수 만 명이 참석할 수 있다”며 “남가주 1400여 개 교회와 남가주 지역 다민족 교회 성도들이 기도회 영적 전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올해 선거는 미국이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지, 사회주의 반 기독교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지를 중요한 선거”라며 “이 나라가 성경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기도회를 준비하며 남가주 각 지역 교협과 목사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기도회 당일 까지 △코로나19의 종식 △11월 미국 대선 △미국과 전세계 부흥을 위해 기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10월 16일(금)을 다민족연합기도회로 선포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美 진보 성향 대법관 루스 킨즈버그 별세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 대법관이 18일 심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미연방대법원이 밝혔다.

그녀는 2009년 심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2018년 폐암, 올해는 간암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미네소타 유세 중 킨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놀라운 삶을 이끈 놀라운 여성이었다”며 추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

해 “법의 거인을 잃은 데 대해 애도한다. 그는 대법원에서 보여준 훌륭한 정신과 강력한 반대로 명성을 얻으셨던 분”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매우 슬픈 소식”이라며 “그는 위축되지 않고 맹렬하게 모두를 위한 인권을 추구한 여성이었다”고 애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역사적 인물인 법관을 잃었으며, 대법원은 소중한 동료들 떠나보냈다”며 “우리가 그렇듯 미래 세대 또한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를 지칠 줄

모르는, 굳건한 정의의 수호자로 기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를 “성평등을 이끈 강인한 법률가이자 견고한 지지자”라며 “진실로 위대한 여성을 잃은 미국인들의 한없는 슬픔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후보로 뛰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인의 별세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손실”이라며 “그녀는 정의와 평등권의 비범한 수호자였으며, 미국 현대사에서 위대한 법관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 연방대법관. ©위키미디어 commons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 대선을 두 달로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그의 후임을 지명하는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된다.

미치 매킨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상원은 곧바로 인준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다음 대법관은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선임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해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축복의 삶이 되는 기도! 마태복음 6:9~13

능력의 기도가 되는 삶!

LIVE www.gracemi.com/온라인예배
일시: 2020. 10. 1(목) ~ 4(주일)
1(목) 7:30pm / 2(금) 5:30am, 7:30pm
3(토) 6:00am, 7:30pm
4(주일) 7:30am, 9:20am, 11:30am, 2: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진재혁 목사(전 지구촌교회 담임/ 현 케냐 선교사)

진재혁 목사
- 풀라신학대학원 (Ph.D.)
- 미국 뉴비전교회 담임
-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 현 케냐 선교사

주일 예배
1부: 7:30am, 2부: 9:30am 3부: 11:30am, 4부: 2:00pm
EM 예배 : 1부: 9:20am, 2부: 11:30am
일천번제 특별새벽기도회 금요일성령집회
월~금 5:30am, 토 6:00am 7:30p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베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베드	오후 04:30(화요일)
CB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3:3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CGNTV CH 319	오후 10:0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8:30(토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4:00(토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4:0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만남의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24개 교회에 총 2만 4천 달러 지원 지역 교회와 이웃 돌보는 사역에 힘쓸 것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벨리 지역교회와 LA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선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 총 24개 교회에 각 1천 달러씩, 총 2만 4천 달러를 지원했다.

당초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10개 교회 지원을 목표로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는 지원이 필요한 교회들의 상황이 시급함을 보던 한 성도가 14개 교회를 돕겠다고 자원하고 나서 모두 24개 교회를 지원할 수 있

었다.

만남의교회는 지난 13일,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교회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역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만남의교회는 팬데믹 기간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했던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만남의교회
주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전화: (818) 882-9191
홈페이지: churchmannam.com



만남의교회 이정현 목사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 모아진 헌금을 지역 교회에 전달했다.

LA 기독교일보,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드려

김경진 목사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길잡이 역할’ 당부



LA 기독교일보는 사무실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LA 기독교일보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기독교일보 사무실(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에서 있었다.

이인규 사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성식 목사(LA 백송교회 담임)의 대표 기도 후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담임)가 설교에 이어

축도했다.

사도행전 8장 1-3절, 11장 19-21 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김경진 목사는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다”면서 “지금 팬데믹 상황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것인데 비대면이란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럴 때일수록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독교일보가 매우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새롭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미주 한인 이민교회와 성도들을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규 사장은 “미주 한인 기독교 언론의 사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고자 한다”며 “미주 한인교계의 연합과 부흥을 위한 신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신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1월 23일 창간한 미주 기독교일보는 △복음주의의 수호 △선교 제일주의 △교회연합과 일치 △기독교문화 창달을 사훈으로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 소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창립 3주년 맞은 남가주 온유한교회, 구디백에 이웃 사랑 담았다!

오는 26일(토) 오후 1시 미주복음방송 주차장



남가주온유한교회 장범원 목사

창립 3주년을 맞은 남가주 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갖는다.

교회는 오는 26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매그놀리아와 라팔마 길 코너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Anaheim) 파킹장에서 세정용 물티슈, 마스크, 쌀, 라면 등을 담은 구디백을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지난달 미주 지역 14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1천 달러씩 긴급지원금을 전달한데 이어 다시 한번 실천하는 사랑 나눔이다.

장범원 담임목사는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 전날인 토요일에는 구디백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다음 날인 주일

에는 창립 3주년 감사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다”며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구디백도 받으시고 아울러 3살 생일도 축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온유한교회는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오는 27일(주일) 오전 11시 부에나파크 지역 탈프 클락 공원(8800 Rosecrans Ave. Buena Park)에서 야외예배로 드릴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문의: (626) 833-7787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김학송 선교사 “北 억류된 한국인 6명 구출해야”

“2018년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에서 석방된 후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번 방한도 한국 정부와 국민, 기독교계가 이들의 석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석방 추진을 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에서 농작물 재배 실습을 하며 학생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던 김모세(김학송) 선교사는 2017년 5월 6일, 평양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 긴급체포됐다. 북한체제를 비난했다는 죄목이었다.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힌 그에게 북한 보위부는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줄 알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5월 9일, 김 선교사는 그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김동철 목사, 김상덕 선교사와 함께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직접 북한에 가서 자국민 세 명의 석방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이들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환했다. 작년 7월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때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미나 일정 차 방한한 김모세 선교사는 지난 8일 기독교일보CHTV 유튜브 방송에서 “(석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미국이 우리 국민 세 명을 석방해야만 북한과 담판한다고 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김 선교사에게 현재 사역을 묻자 지금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2013년 체포), 김국기(2014년 체포), 최준길(2014년 체포) 선교사, 탈북민인 김원호(4년째 수감), 고현철(미상), 함진우(미상) 선교사,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족 장문석(2013년 체포) 선교사의 석방 추진 활동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에 사명을 가지고 북한 억류자 구출 운동을 하고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김 선교사는 북한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일기도전사’ 그룹에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월요일마다 북한 억류 선교



김모세 선교사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지만,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기독교일보 CHTV 캡처

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오니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해 일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본다”며 “기도 그룹이 1년간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많이 설교하는데, 실제 (억류된 한국 국민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 하나님이 진정 받으실 예배라고 믿는다”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새로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김 선교사는 북한 감옥에서 1년간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북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6절까지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보고 울면서 감옥에서 왔다 갔다, 땀방울 흘리며 말씀을 외웠는

데 이 말씀이 성취됐다”며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1절)라고 했는데, 2018년 5월 9일 생각도 못 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선교사는 “하나님께 ‘제가 뭐네, 제가 뭐네 (그 말씀을 이루셨나요?)’ 여쭙았는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네가 대단해서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이 통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선교사는 “통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통일을 주신다는 것을 못 나라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 특히 한국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일(석방)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동을 주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전쟁 7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를 비롯해 많은 한국인에게 통일은 당위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간간적으로 볼 때는 통일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반도를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민족도 한민족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분단됐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

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관점에서 회복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또박또박 설명했다. 그래서 통일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회복하는 하나님 마음의 관점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서 ‘선교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 돼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에 대해 김 선교사는 단연 ‘기도’와 ‘연합’을 꼽았다. 그는 “기도도 소리로 하는 기도와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며 “하나님은 오늘날 행동으로 하는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통일사역을 위한 연합에 대해 “사실 북한선교는 여러 교단과 단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통일을 위해 연합하여 행동할 때인데 이를 위해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

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교회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렸다. 김 선교사는 “무수한 순교자, 이름도 모르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통일도 이름 없는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좀 민감한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법칙이다. 대가 없는 평화는 없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평화통일과 북측통일은 완전히 다르다. 대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북측통일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이어 지구상에서 종교 때문에 가장 핍박받고 결박된 북한이 결국 10대만 올라가면 우리와 한 조상 아래 태어난 내 형제, 골육의 친척임을 인식할 것을 요청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의 구원을 원했다. 이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은 말씀이기도 하다”며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정말 제가 그런 피를 흘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다”고 말했다.

김모세 선교사는 기도제목은 묻자 “생사 확인이 힘든 탈북민 선교사 세 명의 생사가 확인되고, 억류된 6명의 한국인 구출을 위해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억류 중인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장문석 선교사는) 국적이 중국이니 한국 정부에서는 (이야기할) 명분이 없고, 누구 하나 그를 위해 정말 애달파하는 단체도, 나라도 없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기다리겠나”라며 “한국 국적자 6명, 중국 조선족 1명 등 7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석방되고, 석방되는 날이 통일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꿈꾸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의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꿈꾸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성신대 명예교수), 이영희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도 운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교회), 신정민목사(복음전도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공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관리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꿈꾸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련 ‘빛은 그늘 의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립니다. 전화 주세!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y@gmail.com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영상기도회)
Multi-Ethnic Virtual Prayer Gathering

COVID 종식, 11월의 선거, 부흥과 회복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밤 7:30~9:30
현장 기도회 : 은혜한인교회
중계 : 미주복음방송, CTS America, 은혜한인교회GKC TV,
YouTube :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지금은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Covid-19 극복을 위하여!
11월에 있는 각 선거를 위하여!
미국 건국정신인 청교도신앙 회복을 위하여!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 강순영 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이성우 목사(213-675-6493)
사무총장 : 강태광 목사(323-578-7933)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5

“이상훈 목사 부부 선교사 파송을 받다”

지난 6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장로회 신학대학장으로 사역하는 임원석 선교사로부터 후임 학장직의 멕시코 장로교단의 청빙서를 받았다. 기도하면서 어려운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먼저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부부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역을 중동의 이슬람권 지역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아내는 같이 동행하고자 결정하였고 자녀들도 기쁨으로 격려했다. 그리고 교회에 오픈하고 상의하였다. 2주간의 기도시간을 갖은 후에 교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으며 흔쾌히 담임목사의 선교사 파송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9월 10일 필자가 속한 노회에서 노회 파송 선교사 허락을 받으므로 멕시코 사역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은 필자가 20여 년 전부터 단기선교를 시작으로 매년 섬기면서 그동안 운영 이사로도 섬기고 있었다. 22년 전 첫 발을 밟았던 때부터 신학교는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건실하게 성장해 나갔다. 처음엔 허름한 가옥 한 채였던 메마른 사막 벌판에서 뜨거운 햇볕과 모래 바람을 맞으며 땀 흘리며 땅도 파고 부지를 조금씩 얻으며 건축도 진행했다. 매년 단기선교팀이 갈 때마다 기숙사 몇 칸이 더 생기고 시설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100명이 동시에 기숙하며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진 발전을 보였다.

개척 선교사였던 임원석 선교사의 신학교 비전은 남달랐다. 복음 선교가 우선이었고, 신학생들을 배출하여 그들의 고향 지역에 파송함으로써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 철저히 경건 훈련과 신학교육을 위해 미국과 남미에서의 존경받는 교수들을 영입하는데 열심을 다했다. 남부 치아파스까지 15인승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삼일 밤낮을 달려가 신입학생들을 라이드 하고 그 먼 거리를 다시 달려오곤 했다. 그렇게 10명, 20명씩 직접 실어 왔던 학생들이 이 신학교 4년 과정을 통해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장성하여 어느덧 160여 명의 목사들을 배출하였고, 안수를 받지 못한 여성 사역자들까지 220여 명의 귀한 교회 사역자들이 국경지역과 남부 치아파스주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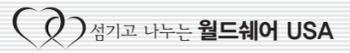
올 10월 24일에 제22회 졸업식이 열린다. 이미 선배 졸업생들은 멕시코 장로교단의 각 노회들에서 노회장과 임원들을 하며 교단 안에서 지도자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졸업생들이 목회 현장에서 훌륭하게 서갈 때 그들이 다녔던 학교는 자동 명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이 신학교는 명문이 되었다.

9월 21일 학교의 개학식이 있었다. 17명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과 재학생들과의 환영식 만찬도 마쳤다. 학부과정의 학생들은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왔다. 학교 안에는 기숙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학생들은 전원 전 과정 장학금으로 교육을 받는다. 물론 신학교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사랑으로 보내 주는 선교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자치 학생회 제도를 갖고 있다. 4학년 학생회장 중심으로 각 학년장들이 학생회 임원을 꾸린다. 그리고 학생들은 예배부, 봉사부, 음악부 등을 만들어 각자의 사역을 맡는다. 식사 당번도 신입생을 뺀 재학생들이 순번을 정해 자율적으로 즐겁게 생활한다.

오전 5시 기상, 전 학생들과 스텝, 그리고 선교사들 모두 참여 매일 새벽기도를 진행한다. 7시 아침 식사 후 개별적으로 학교 정원이나 휴게실, 야외 강당 등을 찾아 성경 읽기를 날마다 진행한다. 그리고 수업.

현지인 스텝들이 학생들을 섬긴다. 행정실, 총무실, 음악실을 담당하는 스텝들이다. 이런 젊은 현지 영혼들과 이제 필자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기로 결단하였다.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크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부르심을 속히 깨달아 이 곳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가르쳐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게 파송하는 꿈을 꾸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



최초의 역사책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제(구약, 다리오)는 그리스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항복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분노한 다리우스는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하여 아테네에서 40여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아테네는 1만 명의 기갑병으로 페르시아 10만 대군을 협곡으로 유인해 괴멸시켜 마라톤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이 마라톤 전쟁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아테네 군인 페이피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을 가로질러 달렸답니다.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는 소식을 전하고 숨을 거두었고, 페이피피데스가 달린 42.195Km를 기리며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될 때 언어학자 이셀 브레일 교수가 쿠베르탱 남작에게 이 고사를 전함으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라톤의 유래는 인류 최초의 역사책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페이피피데스는 페르시아군이 마라톤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200Km를 이틀에 달려 스파르타에 가서 지원군을 요청한 전령입니다. 아테네의 끈끈한 동맹이었던 스파르타는 파병을 결정했으나 만일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전통(혹, 종교적 이유) 때문에 파병을 못하고 아테네와 기타 동맹 도시국가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을 물리칩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책으로 알려진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기원전 440년경 작품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히스토리야’는 원래 ‘조사’, ‘연구’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책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이 말이 역사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인간의 관습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대 근동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인류 역사의 불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전 9권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전쟁의 실상을 기록할 목적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페르시아전쟁은 당시 근동의 패권국가인 페르시아 제국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결성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 사이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전쟁사이지만 전쟁이야기만 국한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인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인류학적 그리고 민족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헤로도토스가 여행한 여러 지역의 문화, 풍습, 역사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에 정통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파사입니다.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구약, 고레스)가 세운 나라입니다. 고레스왕은 인간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군인들에게 점령지 주민들을 약탈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그는 점령지를 개발하려는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구약 에스라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제국으로 세운 왕은 ‘다리우스’(구약, 다리오)입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그리스 영역까지 침범하여 고대의 가장 큰 제국으로 키웠습니다. 그를 이은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구약, 아하수에르)는 아테네와 벌인 ‘살라미’ 해전에 패하고 패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

1세의 왕비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기술하면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전해들은 풍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역사 기술이 사실과 다르고 내용에 편향적인 시각이 들어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루키아노스는 헤로도토스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합니다. 학자들도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여행한 범위를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평가절하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고학과 문헌학의 발달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사실임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헤로도토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역사학과 인문학에서 소중한 자료로 인정을 받게 되고 헤로도토스도 역사의 아버지, 인류학의 아버지로 인정받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터키의 해안도시 할리카르네소스 출신입니다. 그는 약 30세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등지를 여행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여행기간 중에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남긴 사료를 통해 그는 상당히 개방적인 세계관과 타민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고 타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존중과 균형을 잃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료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2권에서 이집트 문명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데 고대 이집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본 강대국 페르시아가 망하는 이유는 초심을 잃은 페르시아의 오만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봅니다. 고레스 왕 이후 왕들이 정복국의 문화를 멸시하고 그리스 같은 약소국을 깔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아테네를 위시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인권과 자유를 지키려는 맹렬한 저항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시대의 큰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협력합니다. 월드쉐어는 최첨단 기지에서 뛰어드는 코어와 현대 빈곤 해결을 사명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빌 브라이트 박사와 보넷 브라이트 여사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20) 빌 브라이트 박사와 CCC운동

빌 브라이트 박사는 Campus Crusade for Christ(대학생선교회)의 설립자로 사도바울 이래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전략적인 삶을 살면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파송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전략가였다.

4영리 전도 소책자와 개인전도 훈련과정을 만들어 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쉽게 전하도록 했고, 누가복음을 대본으로 영화 "JESUS"를 만들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을 영상으로 만나게 했으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전 생애를 살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CCC운동의 시작

빌 브라이트(Bill Bright, 1921 - 2003)는 1921년 오클라호마주 Tulsa에서 가까운 Coweta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Mary Bright은 아들을 출산할 때 앓았고, 다음에 Bill을 임신했는데 의사가 태아에 문제가 있어 유산시키지 않으면 Mary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를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겠노라고 서원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는 엄마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엄마는 자주 Bill에게 하나님과의 서원에 대해 말해주었고, 그녀는 평생 주님을 잘 섬기면서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자가 되었다.

어린 시절 넓은 오클라호마 목장에서 말을 타며 야성을 키웠다. 독서와 운동을 좋아했고 웅변과 변론을 좋아해 웅변대회에서 자주 1등을 했다.

North East 주립대학에서 연설학, 변론학, 연극을 전공했으며 총학생회장으로 활약했다. 그의 꿈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계로 들어가려 했기에 대학을 최

우수 학생으로 졸업한 후에 군 입대를 원했으나 고교시절 풋볼을 하다가 귀를 다쳐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군 입대가 좌절 되었다. 그는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대규모로 모병을 하는 Los Angeles로 가게 된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집 속에 새로 산 성경책을 넣어준다. Los Angeles에서도 신체검사에 또 떨어지자 사업에 손을 대 Bright Brandied Foods라는 과자회사를 만들었다.

아파트 주인이 할리우드장로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어서 그분의 권유로 할리우드장로교회를 나갔다가 유명한 성경교사인 헨리에타 미어즈(Henrietta Mears, 미어즈 성경 핸드북의 저자) 여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 받은 후 사도바울처럼 예수님께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도전을 받는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 두 질문을 하면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 후 미어즈 여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자신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예수" 영화 제작을 꿈꾼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 풀러신학교로 전학한다.

미어즈 여사가 인도하는 수련회에 참석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모품'이 될 헌신자를 찾고 계신다는 도전을 받고 브라이트를 비롯한 4명의 젊은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소모품이 되겠다고 헌신하기도 했다.

빌이 헌신하여 준비한 다음 수련회에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으나, 예수를 몰랐던 그의 약혼녀 보넷이 헨리에타 미어즈와 개인면담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녀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변화된 보넷과 결혼을 한 후에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사랑하는 예수의 노예로 살겠노라고 '노예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한다.

빌 브라이트 박사와 보넷 브라이트 여사

"우리 자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구주의 보혈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 두기로 하고 소유한 모든 것, 소유하게 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 어디든지 가고 하라 하시는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바울처럼 철저히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후 그들은 평생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된다. 노예가 되기로 한 후에 그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노예 계약서를 쓴 후에 신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셨다. 그 체험은 너무 풍성하고 의미 심했지만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고 살아있는 동안 지상명령을 성취하라는 비전을 주신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과 세계의 대학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빌은 기도 중에 구호를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로 하기로 한다.

흥분 가운데 잠을 설치고 자신의 멘토인 풀러신학교 교수인 월버스미스 박사를 찾아가 그가 받은 비전을 나누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확신을 주시고 다음 날 부르시더니 CCC라는 글자와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에 주신 것 같다고 적어 주셨다.

CCC 사역의 첫 시작은 신학교 친구들과, 할리우드장로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24시간 연쇄기도부터 시작했다. UCLA 여학생 클럽에서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몇 달 동안에 250명 이상의 유력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

빌과 보넷은 계속 Staff들을 늘려가면서 전도하고, 반복 훈련을 통

하여 육성하고, 영적 재생산을 위해 파송하는 Win man, Build man, Sand man 전략을 세웠다.

전도와 양육을 위해 교육자료들을 만들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쉽고 단순하게 전하는 효과적인 전도 소책자인 4영리를 만들었고, 능력 있는 삶을 쉽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개념 소책자들, 10 단계 성서 교재 등 양육교재들을 만들어 영적 재생산을 시도해 오고 있다.

1958년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김준곤 목사를 만나 한국으로 파송하고, 역시 풀러신학교에서 만난 군단 마세이를 파키스탄에 파송함으로써 196개 나라에 25,000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972년에는 한 도시 전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라스의 미식 축구장인 코튼볼스타디움에 Explo'72라는 이름으로 1주일간 85,000의 대학생들과 평신도들을 모아 전도 훈련을 시켜 마지막 날 전 도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3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다. 1974년에는 김준곤 목사님과 한국CCC가 준비하여 Explo'74라는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광장과 인근 학교들을 빌려 낮에는 30만 명을 개인전도훈련을 시켰고, 밤에는 매일 밤 100만 명이 상석 여의도광장에 모여 빌 브라이트 박사와 김준곤 목사가 주 강사가 되어 민족복음화대회를, 심야에는 매일 밤 30만 명 내외의 성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철야기도회를 가지면서 1주일간 민족복음화대회를 실시함으로 그 이후 몇 년 동안 매년 70만 명의 신자가 들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다.

Explo'74에 도전을 받고 Bill은 246개 도시에서 "나는 찾았네 새생명 예수" 전도 캠페인을 통해 수천 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서 1980년에 역시 한국CCC가 중심이 되어 여의도광장에서 매일 밤 100만-150만 명이 모여 "80 세계복음화대성회"를 1주일 간 갖고 마지막 날 밤에는 13만 명이 선

교에 헌신함으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한 시동이 강하게 걸리기 시작했다.

1885년에는 Explo'85 라는 이름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세계 68 개국 100여 개의 도시에서 동시 대형 집회를 열어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1994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도덕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부흥을 통한 회복을 위해서 역대하7:14 말씀과 함께 40 일간 금식기도를 한다. 그 해 가을 올랜도에서 미국의 주요 영적지도자들 600명을 올랜도에 초청하여 3일간 나라 위한 회개와 금식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기도운동을 시작한다. 1995년에는 로스 엔젤레스에서 4000명이 3일간 나라 위한 금식기도회를 갖는 등 말년을 나라의 회복과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기도운동에 헌신했다. 본인은 40일 주스금식기도를 9 차례나 했다.

1996년에는 종교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턴 상을 수상했다

Bill Bright 박사는 주님 품에 가셨지만 그에 의해서 시작된 CCC운동(지금은 CRU로 단체 이름이 바뀜)이 계속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미국에 다시 Bright 박사 같은 분을 세우주시도록 기도하자.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준곤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성당: 조종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호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온라인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남침례교 “대사명 받은 침례교인” 2021 총회 주제로 채택

미국 남침례교가 2021년 연례 총회 주제로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침례교인(We Are Great Commission Baptists)”을 채택했다.

백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남침례교 J.D. 그리어 회장은 14일 총회 주제를 이 같이 발표하면서, 교단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덧붙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무엇보다 복음(Gospel Above All)’이 총회 주제로 선정됐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3년째 회장직을 연임한 그리어 목사는 “우리가 총회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대사명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 문구를 사용하기에 적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SBC 교단 임원들도 “남침례교회의 정체성에 완벽히 일치하는 문구”라며 동의했다. SBC 지도부는 2012년에도 이 문



2015년 미국 남침례교 연례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 ©Paul Lee

구를 비공식 명칭으로 승인하 바 있다. 2012년 집행부 임원이자 찰스턴 제1침례교회를 이끄는 마샬 블락 목사는 당시 이 주제를 채택한 이유로,

사명을 추구하고, 장벽을 허물며, 교단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백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블락 목

사는 지난 8월, 총회 주제와 관련해 “미래를 여는 진정한 열쇠는 우리가 투표하는 프로그램이나 선택한 이름에 있지 않다”며 “핵심은 우리가 과

연 위대한 부름받은 세례자인가 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자, 그리어 회장도 이에 화답하며 “과거보다 더욱 우리의 사명에 부합하기로 했다.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침례교인들”이라고 동의했다.

그리어 회장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던 많은 위대한 업적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175년 동안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였다. 그것은 선교”라며 “대사명을 받은 침례교인이란 문구는 ()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기는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는지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 SBC 연차총회는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김유진 기자

캘리포니아 해변서 1000명 세례... 평소보다 3배 증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치노힐스 갈보리 채플 교회 인스타그램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해변에서 열린 세례식에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고 이는 평소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신호일 수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CP에 따르면 치노힐스 갈보리 채플 교회는 지난 12일 뉴포트비치 코로나 델 마 주 해변에서 야외 세례식을 열고 이날만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잭 히브스(Jack Hibbs)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가장 큰 우리의 세례였다”고 고백했다.

지난 글렌슨 캘버리 채플교회 소장은 CBN뉴스와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평소 야외 세례식에 300명 정도가 참여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놀랍고도 중요한 숫자”라고 덧붙였다.

CP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교회의 예배가 제한된 남부 캘리

포니아에서는 ‘영적 부흥’을 해변에서 목격하는 것이 이제는 흔한 광경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대규모 세례를 위한 명소로 손꼽혔던 이 해변은 2018년 그렉 로리 목사가 ‘예수 혁명 스타일’이란 제목의 세례식을 열어 550여명이 세례를 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실내 예배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이 곳을 찾는 교인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서 7월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독교 단체인 ‘Saturate OC’ 주최로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해변에서 찬양 부흥집회와 야외 세례식이 함께 이어졌다.

올해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야외 기도 행사를 이끌고 있는 셉션(Sean Feucht)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예배란) 날 것 그대로의 복음과 예수 운동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며 코로나 이후 상황이 “우리는 우리 건물 밖에 있어야만 하게

되었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해결 대안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히브스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예배 제한 명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온 현지 목회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목회자들은 교회를 열 것인지, 양떼의 정서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시 돌보고 복음을 전파할지 여부를 놓고 아직도 서로 논쟁 중이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께 묻고 싶다. 그게 언제데?”라고 반문했다.

갈보리 채플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매일 특별 저녁 예배를 열어 ‘교회의 성숙과 거룩’, ‘캘리포니아 전역에 영혼들의 부흥과 구원’, ‘주지와 주, 지역 지도자’, ‘군인, 법 집행자, 구급대원’, ‘국가의 죄와 부정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 다가오는 선거’ 등을 기도제목으로 두고 기도행진을 이어갔다. 김유진 기자

성서 협회들, 소수 언어 성경 디지털화 프로젝트 시작

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폴 위클리프 전무이사는 “전 세계 5명 중 1명은 자국어로

전 세계 소수 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성경 번역을 디지털화는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미션 어시스트(MissionAssist), 바이블 소사이어티(Bible Society), 위클리프 성경(Wycliffe Bible) 등에 속한 번역가들은 소수 언어를 번역된 성경 인쇄본을 디지털로 옮길 자원 봉사 번역인들을 모집하고 있다.

CT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는 204개 성경합본, 545개 신약 성서, 지난 80년 동안 출판된 1,000개 이상의 족성경들은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디지털 번역은 소수 언어의 보존 뿐만 아니라, 초기 번역을 수정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성경 협회들은 설명한다.

CT는 디지털화가 완료된 소수 언어들은 ‘유버전(YouVersion)’과 같은 주요 온라인 성경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미션어시스트의 대릴 리처드슨 대표는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삶이 변화된다”면서 “자원 봉사자들이 자신이 정한 국가가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 올 매우 귀중한 작업”

성경을 접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정말 전략적인 주도권(strategic initiative)을 갖는 것”이며 “가독성과 오디오 형식을 모두 갖춘 디지털 성경은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기독교인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로 번역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인 카레어(Kare)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97,000명이 사용하고 있다. 위클리프와 함께 카레어 번역을 돕고 있는 현지인은 “난 태어나서부터 카레어로 된 문자를 본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고유의 언어로 된 글을 읽게 되었다”며 감격을 전했다.

카레어 번역본 성경은 1940년대에 완성됐지만 오랫동안 자료를 찾기 못하다가 최근 영국 기록보관소에서 복사본이 발견됐다. 성경번역 기관인 SIL 인터네셔널 엘리자베스 마르티 소장은 “정말 뜻밖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미션 어시스트측은 번역 자원봉사자들에게 번역용 키보딩 기술을 습득하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리처드슨 대표는 “사람들이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해 미션 어시스트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www.marhlaw.com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www.marhlaw.com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미 교회 87% 현장 예배 복구... 헌금도 점차 회복세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예배 모습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페이스북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폐쇄됐던 미국 교회가 복귀하면서 헌금 모금도 점차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조사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8월7일부터 30일 까지 미국 주류 기독교, 복음주의, 독립 개신교 교회 목회자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교회 분포는 도시 33%, 도시 근교 33%, 시골이나 작은 마을 25%, 대도시 9%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교회 헌금이 '늘었다'는 응답은 22%로 올해 4월에 비해 14%가 상승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42%로 15%가 증가했다. 반면 헌금이 감소했다고 대답한 목회자는 36%로 집계되어 65%를 기록했던 4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목회자의 대다수인 87%는 현장 예배를 재개했으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남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이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7월 발표한 71%에 비해 16%가 증가한 수치며, 비슷한 시기에 바르나 그룹이 실시한 설문에서는 목회자의 49%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석율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라는 응답이 58%를 차지했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NAE) 대변인인 브라이언 클루스 목사는 "이것은 미국 전역의 교회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이 새로운 발견들은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고, 심지어 변형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클루스 목사는 그러나 헌금이 상승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자들은 여전히 재정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많은 교회의 재정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염병 이전에 조사한 것에 비해 90%의 목회자들이 가정과 교회 활동에서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특히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한 해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찰스 스탠리 목사, 50여년 섬긴 애틀랜타 제일침례교회 담임 사퇴



찰스 스탠리 목사. ©애틀랜타 제일침례교회

미국 애틀랜타 제일침례교회에서 50년 가까이 사역해 온 찰스 스탠리(Charles Stanley) 목사가 최근 녹화된 온라인 주일예배를 통해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찰스 스탠리 목사는 앤서니 조지(Anthony George) 박사가 자신의 후임을 맡게 될 것이며 이 같이 전했다. 스탠리 목사는 온라인 예배에서 "이달 초 이사회에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가 온 것 같다고 알렸다"며 "멋진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자리를 사랑한 만큼, 그 끝이 올 것도 알고 있었다. 이번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절제된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69년부터 제일침례교회 담임을 맡아 온 스탠리 목사는 이후 '인 터치 미니스트리'(In Touch Ministries)에서 활동 계획이다. 인 터치 미니스트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 이끌고 지역 교회를 강하게 하자'는 목표로 스탠리 목사가 1992년 설립한 단체다. 제일침례교회 측은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목회자들의 목회자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애틀랜타 제일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온 조지 박사는 "목사님이 이겨내야 했던 모든 시련과 그동

안 싸워 온 모든 싸움을 통해 강하고 선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목사님은 당당하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이 지구를 덮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다"고 증거했다. 이에 스탠리 목사는 "너무 감사하다. 앤서니 박사의 리더십, 하나님과 교인들을 향한 사랑에 감사하다"면서 "제일침례교회 앞에 좋은 날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장 위대한 날들이 펼쳐질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국의 목사라고 불리는 찰스 스탠리 목사는 리치몬드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사우스웨스트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루터 리스 신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남침례교 총회장을 두 번 역임했으며, 매일의 실제적 신앙의 삶을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야기하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저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Living the Extraordinary Life), '내 능력의 근원(The Source of My Strenth),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Pathways to His presen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How to Listen to God), '크리스천 삶을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Christian Living) 등이 있다. 김유진 기자

교회민간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인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7:00) 수요일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0.1만2세대를 위한, 이민가정을 위한, 선교를 위한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7:00)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에델민예배(소매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화)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종교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ca91789.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10:15
주일 2부 오전 9:00 JCOCC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i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찬양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수요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 성경회 목회 7:45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 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나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요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시리아 현지인 목사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최근 전쟁 및 전염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지에 남아 헌신하는 시리아인 목사의 사역을 소개했다. 시리아 카미실리에서 연합교회(Alliance Church)를 이끌고 있는 조지 무시(George Moushi)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무시 목사는 내전으로 인해 폭탄이 떨어질 때도, 코로나19로 인한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때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시리아를 탈출하면서, 성도들의 수는 18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줄었다. 고향인 카미실리에 터키군 폭탄이 떨어진 2019년 무시 목사는 처음으로 잔류 여부를 고민했다. 내전이 처음 시작된 지 10년 만이었다. 당시 터키군은 쿠르드족이 이끄는 시리아민주군으로부터 30km 떨어진 지역에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의 봄 작전’을 전개했다.

무시 목사는 “당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집과 가계가 파괴되었다”면서 “터키인들이 시리아에 진입했을 때 두려움이 컸고,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 역시 아이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머무르는 일에 모순을 느꼈다고.

무시 목사는 “터키군은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 여성들을 해치고 집을 약탈하며 많은 피해를 입혔다. 카미실리에 있는 이들은 시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나 역시 교회 성도들과 회의를 했다. 이곳에 머물지 여부를 교회와 함께 결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또 동시에 떠날 때 필요한 교통수단을 알아보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너무 힘들었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이 되었다. ‘내가 남겠다고 할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함께 기도한 후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보니, 약 60%가 머



조지 무시 목사.

물고 싶어했다”면서 “머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여분의 식량과 다른 물품을 구입했다. 또 다른 도시의 교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남아 있는 이들과 떠나는 이들 모두를 응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무시 목사는 “나로서는 카미실리 교회에 아직 성도들이 남아 있다면 떠나고 싶지 않았다”면서 “시리아인들이 카미실리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며 돕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시리아인들이 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존의 기독교 인구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구호활동을 해 온 연합교회는 수백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폭격을 피해 이동하는 일, 사망자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양하는 일도 도왔다. 현재 그의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중 25~30%가 무슬림 출신이다.

영국&아일랜드 오픈도어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중심지로 남아있다.

무시 목사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세계 구원을 나눠주었다.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 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중 법원, 자녀 홈스쿨링한 가정교회 설교자 부부 소환



Xiamen House Church Targeted for the Fourth Time

국제기독교연대가 보도한 중국 박해 소식. 불도저로 철거한 가정교회 모습. © ICC 보도 캡처

중국 남부 푸젠 성의 한 법원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한 가정교회 설교자와 아내를 소환했다고 14일 미국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를 인용해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샤먼시 디안첸 교회의 설교자 유관다 부부는 오는 23일 샤오우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지방 정부로부터 ‘양육권 분쟁’(custody disputes)으로 기소되었다고 ICC는 보고했다.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가정교회인 디안첸 교회(Dianqian Church)는 지난 몇 년 간 지방정부의 괴롭힘에 처해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디안첸은 이 교회가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라고.

지난해 6월 설교자와 성도들은 거주와 홈스쿨링, 예배를 위해 새로운 부지를 구입했지만 지역 공산당 당국은 올해 이 교회를 해체하고 강제 철거했다고 한다.

종교자유와 인권 증진 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교회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교회 활동을 오랜 기간 감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교회 지도자와 교인)은 경찰 혹은 관리들과 대화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3월 중국 교육부는 전국 지방 당

국에 비전통적인 교육 기관의 운영을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자녀를 그러한 시설에 보내는 부모를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중국 온라인매체인 식스 톤(Sixth Tone) 매거진이 보도했다.

중국 공립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기독교는 악한 종교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수년간 지하 교회와 기독교 활동가들을 단속해 왔다고 한다.

2015년에 1천 개가 넘는 교회 십자가가 철거됐고 저장성 전역의 교회 건물이 파괴됐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폐쇄령이 내려진 기간에도 십자가를 파괴하고 교회를 철거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했다.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적어도 절반은 마더록 혹은 불법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공산주의 정부는 기독교인 외에도 지난 3년 동안 중국 서부에서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과 무슬림 교도를 구금하는 등 다양한 소수 종교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 월드 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인 박해와 관련한 세계 최악의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미경 기자

[예장 합동] 정·부총회장에 소강석·배광식 목사 당선



예장 합동 제105회 총회장에 당선된 소강석 목사 ©예장 합동

소 신임 총회장 “장자교단 리더십 세우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5회 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에덴교회를 거점으로 전국 35개 교회에서 분산하여 화상총회 방식으로 21일 개최한 가운데, 임원 선거가 이뤄졌다.

문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는 총회장에 소강석 목사, 부총회장에 배광식 목사가 각각 당선됐다. 모두 단독 후보였다. 김정호 목사(기호 1번)와 고영기 목사(기호 2번)가 경합한 총무 선거에선 총 1,004표를 얻은 고영기 목사가 361표에 그친 김정호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소강석 신임 총회장은 “총신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코로나19 상황대응팀을 구축해 개교회 현장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총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우리 총회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행정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총회미래전략발전위원회를 개설하고, 창조적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말로만 장자교단이 아니라 진정한 장자교단의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 현안에도 당당히 임해 공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동성애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종교인 과세 문제도 전략적으로 대처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교회 목회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러나 이제) 명실상부한 교단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 전체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총회가 한 마음을 이룰 때 가능하다. 교단과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장의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의 1년이 외롭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합동총회를 우뚝 세워가자”고 했다.

그 외 임원은 서기 김한성 목사, 부회기 허은 목사, 회의록서기 정계규 목사, 회계 박성만 장로, 부회계 홍석환 장로다. 모두 단독후보였다. 두 후보가 경합했던 부회록서기 선거에선 711표를 얻은 기호 2번 이종철 목사가, 660표에 그친 기호 1번 신규식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장로부총회장 투표는 잠시 보류됐다. 이승희 목사(선거관리위원장)는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올라온 2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카이캠, 제42회 목사고시 면접 온라인으로 치러



카이캠이 21일, 제42회 목사고시 면접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른 가운데 김상복 목사(뒤) 등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카이캠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캠) 제42회 목사고시 면접고사가 21일 서울 양재동 카이캠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서류심사와 필기고시에 합격한 111명의 면접자들은 이날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조별로 접속해 조별면접과 개인면접에 참여했다. 카이캠은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면접인 만큼 우려도 있었으나, 매우 성공적으로 면접을 완료했다”고 했다.

이날 면접관으로는 송용필 목사와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고성조 목사(카이캠 목회기획국장), 지미숙 목사(카이캠 홍보국장), 박영운 목사(카이캠 목회팀장), 천병 목사(카이캠 목회부팀장)가 함께했다.

김상복 목사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일”이라고 했다.

한 면접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목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회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잘 따라서 어디서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한 면접자는 “중학교 때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때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며 “기도 중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곧 캄보

디아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밝힌 한 면접자는 “아내를 먼저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먼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고, 말씀 등으로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 선교사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교지의 역사와 문화, 그들의 관심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본 현지에서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고 더 소통하며 선교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는 모든 면접자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물으며 격려했다.

한 면접자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중학교 시절에 방황하다가 두란노 경배와찬양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뒤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도 찬양팀을 조직해서 생활했다”며 “총신대 재학시절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미전도종족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필기와 면접에 합격한 이들은 오는 10월 19일 제42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셀기족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재배공평케 하니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열매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8: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 주일 오후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세백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어)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s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가치 있는 삶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치있는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그에 합당한 열매로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섭리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줍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부귀나 명예가, 행복을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귀와 명예가 행복과 기쁨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를 소유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이 도무지 헛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도, 그가 소유한 것으로는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쁜 음식도 배가 부를 때에는 보기에 거북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이 함께 하시게 가까이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은 크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루에 시간을 정리하며 스스로 물어 봅니다. 난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보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릴 보시면 어떤 대답을 해 주실까요? 비록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 하여도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 11절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꽤 많은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자수성가한 기업가 가운데 세계 100대 기업주들을 선발해서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는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계적인 100대 기업가들 가운데, 처음부터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았답니다. 특정한 경제 전문지의 질문 조사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흥미로운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위치에서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기보다는, “이 일은 누군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뛰다보니 어느 사이에 자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또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에게 돈이 따르지 않더라.”고 하는 혹자의

기원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찾을 때, 신앙 배경을 살피는 것이 필수가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파악하는 것은 동역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일어나는 지진이 나, 산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관심이 생깁니다. 산불 피해로 탁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산불의 기원에 대해 더욱 궁금해집니다. 늘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산불을 예방하려면 방화인지, 자연발화인지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3천만 명에 이르고 (미국만 약 7백만 명) 사망자 수만 백만에 이르게 한 코비드 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 불렀습니다. 우한 발 즉,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원지 명칭이 들어간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계적 유행병(팬데믹)이 된 상황에 여쭙면 그 기원이 더는 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근원을 차단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감기처럼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그 기원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팬데믹이 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죄라는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입니다. 확신자 한 사람이 나와도 이렇게 난리인데, ‘죄인’으로 확진된 나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듯한 방식이 오늘도 우리를 더욱 위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원, 출발점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기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같은 고향 출신에, 같은 학교 출신 이기라도 할라치면 금세 친해지곤 합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제는 나이가 궁금해 집니다.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요즘 속된 표현으로 “증을 간다”는 말이 있는데,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자는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 자신의 기원을 필드 없이 밝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출생의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생신고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원래 나이는 두 살 많은데...” 하면서 말입니다.

새 직원을 뽑을 때도 어김없이 이력서를 통해 그 사람의 기원(학력이나, 경력)을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당한 사람인지를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역자를

동성애 정당화 위한 5가지 ‘살라미 전술’



한바다 청년
차별금지법
청년 연대 회원

으로 여기고 있던 것이다.

한 사람은 5만원을 얻어냈고 한 사람은 5만원을 빼앗겼는데, 그에게는 이것이 ‘다행인 상황’ 이었고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그 친구가 당한 전술은 일종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이다. 살라미 전술은 협상 전술 중 하나로, 목표를 한 번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하여 쟁점화한다. 그리고 차례대로 각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상대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계속 얻어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은 ‘퀴어 신학’이라

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틀가 그에 맞서 팬을 들었다. 존 스토틀는 저서 <존 스토틀의 동성애 논쟁>에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바른 신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스토틀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다섯 가지 논리에 대해 거론한다.

첫째는 ‘성경과 문화’라는 논리이다.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 구절이 쓰여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동성애 문화는 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오늘날 문화에서 동성애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창조와 자연’이라는 논리이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관계의 질’이라는 논리이다. 동성애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넷째는 ‘정의와 인권’이라는 논리이다. 특정 성별, 인종, 신분에 대한 차별이 인권 침해인 것처럼,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도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다섯째는 ‘용납과 복음’이라는 논리이다. 동성애자들을 판단해선 안 되며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토틀는 이 다섯 가지 논리들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어떤 논리로도 동성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논증한다.

스토틀는 셋째 논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영국 국교 교리 위원회 의장이었던 한 주교에 대해 비판한다. 1997년, 존 오스틴 베이커 주교가 “동성애 커플의 삶에서도 예로틱한 사랑은 결혼

과 마찬가지로 이로운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다양한 쟁점을 통해 창조 질서에 대해 도전한다. 끊임없이 ‘약간의 양보’를 요구한다. 처음에는 “동성애 금지 구절이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구절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먹히지 않으면 다른 협상 조건을 제시한다. “동성애자들의 난잡한 성관계는 나쁘지만, 정신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동성애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한다. 이번에도 협상에 실패하면 또 다른 협상 조건을 제시한다. “서로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동반자적인 동성애 관계는 괜찮지 않느냐?”

베이커 주교는 이 협상 조건에 응하고 말았다. 영국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약간의 양보’를 해주었다. 그 후 영국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동성애 지지자들도 교회와 신학교에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저들에게 ‘의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협상을 관전하며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던 쪽에서 있던 이들이 점점 중립 지대로 이동하고 있다.

저들의 끈질긴 살라미 전술에 더 이상 당해선 안 된다. 저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협상 조건에도 응해선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신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마가 끝난 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무지개가 자꾸만 여섯 색깔로 보이던 것은 나의 지나친 비관이었을까?

고등학교 시절, 우리 반에는 소위 ‘일진’ 무리에 속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종종 등교하자마자 옆자리 착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곤 했다.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착한 친구는 처음엔 거절한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종일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요구한다.

어조는 ‘부탁하는’ 조에서, 점점 하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협박(?)하는’ 조로 바뀐다. “친구의 딱한 사정에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냐”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나쁜 행위’로 몰아간다.

처음에는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최후에는 선심 쓰듯이 “알겠어. 그러면 얼마 빌려줄 수 있는데?”라고 묻는다. 그럼 하루 종일 시달리던 그 친구는 5만원만 빌려주는 것으로 ‘협상’하고 상황을 마무리한다.

나는 그 거금을 빌려준 친구가 답답하여 나무랐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5만원만 뺀 게 다행이야. 지난번에는 7만원 뺐거든.” 그는 상황을 긍정적



한 교회에서 열린 퀴어신학 세미나 포스터.

는 이름으로 신학계에도 파고들었다.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약간의 양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서구 교회에서 먼저 시도되었는데, 영국의 저명

존 스토틀는 책 <존 스토틀의 동성애 논쟁>을 통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풀어냅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무전압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말씀 제일주의 신앙

느헤미야 8:1-1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2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4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중략)...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중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읽이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원대하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관리하시며 사용하시는데, 그중에 '나'라는 존재도 해당되어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즉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조(亡兆)로 질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 19-20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톱으로 썰어 토막 내어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거나, 관계회복을 기대하거나 회개할 것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지고 장정이 하루에 삼만

육천 명이 전사해서 기드론 골짜기가 시체로 매워졌는가하면, 남은 늙은이들과 부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기쁨까지 다 쟁겨 그들로 운반하도록 만들어서 바벨론 수산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살았기에 이같은 불행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귀환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쟁겨오게 하시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 그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여,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배척하여 불행하게 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 중에 회개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포로생활에 너무 지쳐있던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계와 주택, 앞으로의 삶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3차 포로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위한 외형적 조건은 갖추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외침으로 허물어져 버릴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회개의 눈물

본문의 내용은 7월 초하루,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오순절이후에 있는 절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느 8:8-9) 한 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 선지자들에 의해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죄 값으로 너무나 혹독한 환난과 시련, 고통, 그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던 70년간의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유익한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느 8:6)하였다고 했습니다.

3.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

말씀 제일주의 신앙은 곧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했습니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이 생활 속에서 그만큼 영적체질로 변화되어져 가는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증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제일주의 신앙인들로 거듭나셔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이 하늘조건으로 살리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축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뭉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혈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신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핏갈래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관절산 껍질 휘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영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위로**

코로나19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 필요해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필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위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가 말했지요.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지나간다고! 맞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삶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이것만큼 위로는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이나 불안, 아픔, 절망 등을 이겨낼 위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엎어질 때 파스한 손을 내밀거나 어깨를 감싸줄 그 어떤 위로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유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는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위로는 필요한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다.

살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위로 되기도 힘든 시간 스스로 위로하려 써내려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하고, 대기업의 회장도 한 적이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유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혼자 죽음의 길을 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라고 하면 내가 꼭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는 위로는 되기도 한다. 나의 삶의 아픔을 그냥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는 되기도 한다. 강세형 작가는 《희한한 위로》에서 바로 이런 위로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라디오 작가로 활동했다. 첫 책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로 30만 독자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공감의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그 후 발간한 책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위안을, 때로는 먹먹함을 독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저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제법 힘든 시간을 보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쓴 책이 《희한한 위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자는 이 책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위로해 주고 싶었고, 자신이 발견한 위로의 순간들을 스스로 잊지 않도록 기록하고 싶어 쓴 것이다. 이 취지로 쓴 책이지만 책 제목처럼 이 책을 읽으면 희한한 위로를 받는다.

농담처럼 특 별은 말이 오히려 위로는 자신이 발견한 '희한한 위로' 전달되길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런 화두를 던진다. "다, 잘 될거야." 이 말에 나는, 진심으로 위로받아 본 적이 있을까? 저자는 이 말에 한 번도 안도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조금 상처가 되었다고 말한다. 상처가 되었기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무턱대고 '다 잘 될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하고 영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다.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와 함께 "다 잘 될거야"라고 말해주는 사람 앞에선 배배 꼬인 심보를 보이다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농담처럼 특 내뻗어진 친구의 말에 오히려 위로받았다고 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무심한 작은 배려 하나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기나 하고 싶어서 틀어놓은 코미디 영화가 뜬금없이 감동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한 저자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위로는,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작정하고 내뻗어진 의도된 말에서보다는, 영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저자가 전하는 희한한 위로 몇 가

지만 생각해 보자.

노력. 그 말이 주는 무력감, 자괴감, 그리고 상처를 안다. 그래서 나는 희귀병(베체트) 진단을 받고도 기뻐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 이 긴 글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는 게 참, 힘들죠?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왜 꼭,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걸까? 이 세상에는 뒤에서 묵묵히 커다란 기계의 톱니바퀴 한 축처럼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아니 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코 소홀하게 흘려보내며 살고 있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나 주인공이 되어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망보다는, 조용히 듣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할 뿐이다. 누가 날 알아봐 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관찰하는 쪽이 더 즐거울 뿐이다. 나처럼 조금 다른 형태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그 욕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도움을 받는데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도와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받은 도움으로, 조금 더 밝은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금 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한 번 수박을 베어 물으며 생각했다. 참 좋은 계절이라고, 내일은 물론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아직도 왜 꼭 사계절이 다 있어야 하는지, 왜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왜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의 첫 수박은 참 맛있었다. 운이 좋았다. 두 달 후면 이 맛이 또 그리워질테니, 그전에 많이

먹어야지."

위로는 진통제... 계속 맞을 수 없어 하나님 위로는 부작용도 한계도 없어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연약함 아신다

위로는 마치 진통제와 효과가 비슷하다. 병원에서 수술 후에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나면 얼마 후 그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진통제의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아픔은 찾아온다. 진통제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맞을 수가 없다.

인간의 위로는 진통제처럼 부작용도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부작용이 없다. 한계가 없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고후 1:3)."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위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실수와 잘못도 다 아신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연약함도 아신다. 절망으로 답답해하는 마음도 다 아시고 다가오셔서 안아주신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4)."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희한한 위로
강세형
수오서재 | 230쪽

공감의 작가 강세형, 3년 만의 신작 에세이 "위로는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른다. 영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잘될 거야', 그 말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

"겨우 하고비 넘어온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되는 그 수많은 하루하루를, 다들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명확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간석 목사

1995년 말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명대학교 담임목사로 사임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대상, 천상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열정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건국대학교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권-농어촌 부원, 부의회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본부장 등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라북도 전주에서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한신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콤란, 콤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콤란출판사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 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